

“한국 강진은 너무 아름다워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주최 외국인 팸투어 강진군 일원서 성황 24개국 50여명 참여...“28일부터 시작 청지축제 활성화 되길”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외국인 초청 팸투어를 강진군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인 제46회 강진청지축제와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통해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강진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팸투어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24개국 50여명이 참여했다.

팸투어 첫째 날 일정으로 오감통 무위사, 백운동 별서정원, 강진다원 강진만 생태공원, 영랑생가 세계모란공원을 둘러보고 ‘강진 나이트 드림’이라는 야간여행에도 참여했다. 둘째 날에는 고려청자박물관과 청자 공동판매장, 한국민화뮤지엄, 가우도와 해상레저 체험, 전라병영성과 하멜기념관 등을 둘러봤다.

오감통의 실내공연장에서 시작한 이번 팸투어는 신나는 클럽음악으로 흥을 돋웠다. 호주에서 온 나탈리씨는 강진노래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시는 강진노인대학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 함께 춤을 추며 젊은 외국인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나는 춤판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 성전면에 있는 무위사 백운동별서정원, 강진다원과 강진만 생태공원을 둘러 본 일본인 겐지씨는 “무위사의 국악보존과 강진다원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강진만 생태공원과 비슷한 갈대밭이 고항에도 있는데 잠시 고향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플라워씨는 가는 곳마다 관광지 이름과 경치 그리고 느낀 감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좋아요, 좋아요”를 연발했다. 특히 가우도에서는 진행이 너무 빠르다면서 이 아름다움을 더 느끼고 싶어서 천천히 가지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강진한정식을 체험한 호주인 벨

린다씨는 서툰 젓가락질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며 한국에서 먹어 본 음식중에서 최고로 맛있다고 강진의 음식 삼매경에 빠져 엄지를 치켜세웠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마리나씨는 전라병영성의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일본의 유미코씨는 강진 무위사와 백운동별서정원 등 옛 건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과 사진 찍기에 분주했다.

이번 팸투어의 하이라이트는 가우도 앞바다에서 펼쳐진 요트 승선체험이었다. 팸투어에 참가한 모든 관광객들이 요트 갑판에서 시원한 바다바람을 맞으며 환호와 탄성을 지르며 행복해 하였고, 행

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서로 사진 찍어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중국의 링링씨는 처음 본 외국인과의 타이타닉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러브신을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이들은 요트 실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무료로 제공되는 와인을 마시기도 했다. 미국인 발레리아씨는 요트 뱃머리에 혼자 앉아 여유를 즐기는 등 행복해 한 모습이었다.

이번 팸투어 참여자들은 국내·외 여행을 즐겨하는 사람들로 코리아 트래블신문 관계자와 팔로워 수가 30만명이 넘는 파워블로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 활용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추후 강진을 재방문 할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고 SNS를 통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인식 대표이사는 “2018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평창 동계올림픽, 지방선거, 월드컵 등 2017년과 비교해 다소 침체돼 있는 강진군 관광이 이번 팸투어와 28일부터 시작하는 제46회 강진청지축제를 통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여행관계자 대상 팸투어 진행과 부산 등 대도시 박람회는 물론 국제박람회에도 참가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 유치로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바다가 보이는 해남 어촌으로 떠나보자”

땅끝해남 어촌체험마을...다양한 체험거리로 즐거움 두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땅끝 해남의 어촌체험마을도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해남군 내에는 다양한 바다활동과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어 색다른 휴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황산면 산소어촌체험마을... 개매기·짱뚱어 낚시

이번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서는 황산면 산소어촌체험마을은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고 실시하는 맨손 고기잡이 체험을 비롯해 독살을 이용한 개매기 체험, 대나무 짱뚱어 낚시 등 어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체험거리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지주식 김양식장과 드넓은 갯벌, 염전 등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일출과 일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대나무 굴양식장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마을 경관이 사진 명소로도 이름이 높다. (연락처 061-534-0250, http://sarsa.seantour.com)

◇ 땅끝 사구어촌체험마을...갯벌·바지락 캐기 체험

땅끝마을에 인접한 사구어촌체험마을은 해수욕장과 같이 있어 해수욕을 겸한 개매기 체험, 고기잡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술술과

데크시장이 있어 야외 캠핑도 가능하다. 7월에는 갯벌체험과 바지락 캐기 체험이 가능하다.

사구해변은 때묻지 않은 자연과 가늘고 고운 모래가 특징으로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땅끝바다로 지는 석양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연락처 061-533-5088, 홈페이지 http://sagu.seantour.com)

◇ 무림 어촌체험마을...수변데크·갯벌체험 인기

오산리는 청정 갯벌로 유명한 해남 북쪽면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이다.

해안에 설치된 수변데크와 900여m의 갯벌체험도를 따라 회귀고동과 짱뚱어 칠게 등의 다양한 어패류를 관찰하며 꼬막, 바지락 캐기 등의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다.

드넓은 갯벌에서의 각종 체험은 가족이나 단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인근의 신흥마을에서도 바다낚시 체험장을 조성, 감성돔, 갯장어, 전어 등 풍부한 어종으로 누구나 쉽게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선상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 (연락처 070-7759-5047, 홈페이지 http://osm.seantour.com)

군 관계자는 “다양한 체험을 즐기도록 하는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어촌체험마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해남의 자연과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어촌 체험마을에서 특별한 여름휴가를 즐겨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양군, 예방 교육 통해 식중독 제로화

담양문화회관에서 500여명 대상

남도를 대표하는 웰빙 음식의 본고장 담양군이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담양의 브랜드 위상 제고’에 나섰다.

군은 10일 오후 2시 담양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급식소 관리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자율실천 결의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 예방 교육, 음식문화 개선 결의대회, 노무 교육, 원산지 표시 교육 등으로 진행

됐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음식점, 학교, 어린이집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예방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유러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담양 음식테마거리’를 비롯해 각종 음식경연대회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경기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의 뜻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암군, ‘세금고민 이동상담실’ 운영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지방세담당자 동행 12월까지 진행

영암군은 7월부터 생업에 바쁘거나 거동불편 등 다양한 사정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과 지역민의 소통의 장소인 오일장터를 대상으로 국제·지방세 전문가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고민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고민 이동상담실’은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 지방세담당자가 함께 오는 7월 18일 신북면 오일장터 첫 상담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세금 부과, 체납 등으로 인한 고충 △국세·지방세 생활세금에 대한 상담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에도 힘을 예정이다.

전동령 영암군수는 “생활 속 세금고민 해소를 위해 향후 세무서와의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평상시 지방세 고충 상담은 납세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중암 010-3365-6200	학운 010-4166-1810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광천 010-6612-8599	금호 010-6636-2775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상무 010-5359-7406	풍암 010-6634-5084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진월 010-2615-8374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최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